

“완주 삼봉지구에 중학교 신설”

서거석 교육감, “2028년 3월 개교 목표 총 19학급 규모… 교육환경 개선 기대”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삼봉지구 중학생들이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등 통학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9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

삼봉지구는 주택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는 등 현재 4,0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면서 인구가 급증해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인근 소규모학교가 이전해 와 올해 3월 33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하지만 중학교는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



서거석 교육감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즉,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삼봉지구 내 학생 수 추이와 아파트 단지 개발 상황,

학교 설립 수요와 타당성 점검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현재까지 삼봉지구에 유입된 중학생은 219명으로, 2028년에는 공동주택 추가 입주 계획에 따라 400명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투자심사, 공유

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사업 예산 편성 등 학교 신설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시설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꼭 필요하면 소규모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능하다면 통합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세심히 살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소규모 학교 신설 등과 관련해 최근 양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군산시, 전주시를 예로 들며,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군산 디오션시티나 역세권 등 2곳에 초등학교 신설, 군산남중이전, 군산상일고 이전 신설과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2곳 신설과 제3초 신설, 전라중 이전, 전라고 이전 신설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지중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연구 ‘우수’

전북대 박세은 박사과정생, 한국CCUS추진단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우수’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세은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오주원)이 ‘2024 한국 CCUS추진단·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학생 포스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전북대 지구물리컴퓨터 연구실과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노르웨이 지반공학연구소가 함께 수행한 국제공동연구이다. 박세은 대학원생은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합한 지중저장 부지 선정 과정부터 저장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 대회에서 박 대학원생은 ‘탄성파 속도 및 전기비저항 모델 구축을 통한 복합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술 개발: 슬라이프너 CCS 프로젝트 적용사례’를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학교 구성원의 유해 약물 인식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22일까지 ‘예방 특별교육주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유해 약물 예방 특별교육주간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흡연·음주·마약류 예방 전문가를 초청,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해 약물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를 날마다 진행한다. 17일에는 초·중고 교사 직접 참여하는 ‘신나는 유해 약물 예방 수업’을 주제로 수업나눔을 갖는다. 18일에는 신중 마약 실태 및 청소년 마약 접근 예방관리, 19일 유해 약물 예방 관리를 위한 학생 상담기법을, 20

일은 흡연·음주 실태(신중 담배) 및 예방관리 등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우리 학교 유해 약물 예방 수업 또는 캠페인 사진을 네이버폼(<https://naver.me/xLJukNmX>)으로 올려 주면 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전북교육청이 개발한 학부모용 마약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과 소감 남기기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단체협약 유지 약속하라”

도내 교원 등이 촉구

도내 교원 등 1,000여명(전교조 전북지부 추산)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모여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교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보했다”며, 단체협약 유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협약에 대한 만료 통보를 한 것으로, 서거석 교육감이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화 이후 2000년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측이 수정요구안을 제출한 경우도 처음이며, 이처럼 단체협약 만료를 통보한 것도 전국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투쟁선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내 700여 개 학교를 방문해 단체협약 파기 상황을 일했으며, 5월 14일 집회를 통해 서거석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6월 17일 ‘전북교육퇴행 멈춤의 날’을 열겠다고 선포했다.

끝으로 전교조 전북지부는 “묵숨과도 같은 단체협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전북교육 퇴행 멈춤의 날”을 시작으로 서거석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거듭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가 R&D 리얼 챌린지 연구팀 선정

전북대 건축공학과 APD LAB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지원 5개월간 문화여가 과제 수행

전북대학교 김운상 교수팀(건축공학과)이 운영하는 학원 건축 계획 및 설계 연구실 소속 APD LAB이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건강과 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10대 분야, 43개 세부 영역에서 ‘국민공감, 국민참여 R&D 선도사업’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면과 발표 심사(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는 전국 12개 이공계 대학원생 팀이 최종 선정됐으며 호남지역에는 유일하게 전북대 APD LAB팀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APD LAB 팀은 ‘문화 소의 지역 입지 유형별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계 표준안 제작’을 연구 주제로 제시했다. 김운상 교수의 지도하에 김소현 박사과정생이 연구책임자를 맡았고, 장성운 석사과정생, 최현정 학·석사통합과정생, 김민범 학부생이 참여 연구원으로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APD LAB팀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부터 과제비를 지원받아 오는 10월까지 사회문제인 문화여가분야 중 문화소의, 문화여가공간 미비 영역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5개 직종 245명으로,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221명, 영양실무사 1명, 교무실무사 4명, 특수교육지도사 17명, 과학문화해설사 2명을 선발한다.

특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 조리실무사 인력을 증원하고, 9월 1일부터 확대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조리실무사 채용인원을 대폭 늘렸다.

응시원서는 오는 24~26일 온라인교육채용누리집(<https://www.educarecru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원서제출지원서비스’를 참조해(별관) 2층 2회의실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7월 20일 1차 필기시험과 8월 17일 2차 면접을 거쳐 8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국제 운동주 시낭송 일본대회’ 개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15일 ‘제22회 국제 운동주 시낭송 일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주기전대학이 2010년부터 운동주 시인의 삶과 문화정신을 알리려 국내외 문화교류 및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주최·주관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총 22명의 참가자는 비모국어 사용 참가자 15명, 모국어 사용 참가자 7명이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어로 비모국어 사용 참가자 부문에 △최우수상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 고등학교 박원혜 학생, △우수상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 고등학교 다케다 시라사 학생, △장려상 교토국제고등학교 김미루 학생이다. 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참가자 부문에 △최우수상 동경 한국학교 이문정 학생,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손하은 학생, △건국고등학교 진승우 학생이 수상했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2만엔, 1만엔, 8,000엔, 5,000엔의 기프트 카드가 수여됐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재향군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재향군인회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

서거석 교육감, 재향군인회와 간담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회의실에서 재향군인회(회장 백상록)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백상록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재향군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상록 회장은 “전북교육청이 나라 사랑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

하다”며 “재향군인회도 학생들의 나라 사랑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보장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IB 교사 양성·디지털 교사 연수 적극 협력

전북자치도교육청, 전주교대와 협약… 내년부터 타 시도까지 연수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5층 회의실에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와 IB 교사 양성 및 디지털 교사 연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박병춘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전문가(IBEC 과정) 양성 △초·중·고사 디지털융합교육 연수 및 디지털소양 교육자료 개발 위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에서도 IB 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내년부터 타 시도로 가지 않고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IBEC 과정은 인하대, 남서울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5층 회의실에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와 IB 교사 양성 및 디지털 교사 연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동대, 대구교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남서울대, 한동대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고 교사 45명에게 IBEC(IB 인증 교사) 비학위과정(1년)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